

팍팍한 세상에 전하는 나무의 사랑과 위로

나무의 어두움에 대하여

이난영 지음

제목 때문에 먼저 시선이 가는 책이 있다. 저자보다도 책의 디자인보다도 제목이 주는 울림이 그 책을 선택하게 할 때가 있다.



“나무의 어두움에 대하여”는 시적인 제목이 눈에 띈다. 대부분 나무 하면 싱그러움, 초목의 무성함을 생각하기 쉽다. 시류에 휩쓸리지 않는 의로움, 바람에도 꺾이지 않는 강인함을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무에서 어두움을 보는 것은 쉽지 않다. 지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그 어두움을 본다는 것은 나무에 대한 애정은 물론 세상에 대한 애정이 남다른다는 것일 터다. 어두움을 보는 시선이 깊을수록 인식과 사유의 폭도 깊어질 수밖에 없다.

작가이자 행위예술가인 이난영의 ‘나무의 어두움에 대하여’는 나무가 품는 위로를 전하는 책이다. 저자는 나무의 어두움과 도시의 그늘에 대해 이야기한다. 직접 쓰고 그린 글과 나무는 오랜 여운을 준다.

저자는 오래 전 어느 라디오에서 들은 말로 글을 시작한다. “나무는 세상에서 가장 빠른 동물이다”라는 표현이 그것이다. 깊이 뿌리를 내리고 수많은 생명을 품기 때문이다.

비바람이 세차게 부는 어느 날, 저자는 작은 새 한 마리가 나무의 어두움 속으로 날아드는 것을 본다. 새는 비를 피하기 위해 나무 품에 안겼다.

“아, 나무가 새들을 감쪽같이 보호해주고 있구나, 저 새들이 새들을 안전하게 지켜주고 있구나. 그렇다면 우리도 더 어두워져도 괜찮겠구나.”



사람들은 나무를 통해 위안을 받고 미래의 희망을 찾기도 한다.

〈소통 제공〉

삶에 대한 통찰이 번뜩이는 문장이다. 나무의 어둠이 새들을 안전하게 지켜준다는 사유는 쉽사리 하기 어렵다. 저자의 글을 가만히 소리 내 읽다보면 가슴 한켠이 찜해지는 느낌을 받는다.

“비바람이 세차게 불던 날이었습시다. / 어디선가 황급히 새들이 날아와 / 나무의 어두움 속으로 사라졌습시다. / 아, 나무가 새들을 감쪽같이 보호해주고 있구나. / 저 새들이 새들을 안전하게 지켜주고 있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저자는 도시 재개발 지역에 살면서 우리 주위의 생명체에 관심을 가졌다. 풀이며 꽃, 나무 그리고 다양한 식물과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며 그림과 글에 담

았다. 척박한 환경을 딛고 곳곳이 자라나는 생명들을 책에 담으며 삶에 대한 따뜻한 시선을 견지했다.

도시는 개발이라는 속명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도시의 성장은 그 이면에 쇠퇴와 빈 자리를 만들어낸다. 개발의 뒷면, 떠나고 남은 폐허의 자리에 작은 생명들이 자란다. 잘린 나무가 있으면 콘크리트 틈새를 비집고 나오는 이름 모를 풀들이 있다.

저자는 제주도 비자림로 도로 건설로 숲이 파괴될 때 도 그림으로 함께했다. 도로를 만들기 위해 숲을 지우려는 시도를 할 때 어떤 이들은 생명을 지키기 위해 나

선다. 책에는 이들 활동가들의 모습도 그림으로 수록돼 있다.

저자는 호주머니 속에 씨앗을 넣고 만지작거리며 흥미롭고 재미있는 상상을 한다. 언제고 자신의 키보다 수십 배 크게 자랄 나무의 미래를. 그러면서 누구에게나 호주머니 속 씨앗이 있을 거라 말한다. ‘씨앗 트고 가지가 자라고 아릅드리나무가 되고 그러면서 섬과 안식을 주는 나무’. 다음의 글은 유독 오랜 여운을 준다. “그렇게 우리 모두에게 하나의 나무가 자란다. 아름다운 나무 하나씩 마음속에 품는다면 살아갈 만하지 않을까.”

〈소통·1만8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새로 나온 책

▲외계 문학 걸작선=지난 2021년 장편 ‘킬러스타그램’을 발간하며 문단의 주목을 받았던 이갑수 작가의 두 번째 소설집. 9편의 소설이 수록된 이번 작품집은 오늘의 현실을 살아가는 세계와 인간에 초점을 맞췄다. 물리학 이론과 수학 공식이 가득한 작품은 이상적 사고를 보여주는 간결한 수사 역할을 한다. 로봇과 인공지능으로 대변되는 세상에서 ‘인간적인 면’이 어떤 위상에 놓이는지 특유의 위트와 감동으로 그려낸다. 〈문학과지성사·1만6000원〉



▲교육사상가의 삶과 사상-서양 편=11명의 연구자 및 교육자들이 올리히 백, 로버트 오웬, 미셸 푸코, 존 듀이, 마이클 애플 등 교육사상가 11인을 탐색했다. 교육사상가들의 삶과 교육사상을 매개체로 현대 교육의 위기를 이해하고 새 좌표를 찾아야 하는 취지에서 출발했다. 또한 교육현장에서 이론과 사상에 목말라하는 활동가들에게 안내판과 같은 기능을 제시하려는 의미도 담겨 있다. 〈살림타·2만3000원〉

▲나를 잃어버린 사람들=포브스 선정 ‘꼭 읽어야 할 뇌과학서’, NBC 뉴스 선정 ‘올해의 주목할 만한 과학책’, 퍼블리셔스 위클리 선정 ‘올해의 책’이라는 타이틀답게 책은 뇌과학이 밝힌 인간 자아를 주목한다. 자폐스펙트럼장애를 비롯해 알츠하이머병, 조현병 등 익숙한 병명뿐 아니라 신체통합정체성장애, 유체이탈까지 아우른다. 과연 자아는 어디에서 어떻게 만들어지며 우리의 우리를 만든 것은 무엇인가. 〈더 퀘스트·1만9800원〉

어린이·청소년 책



▲101 평화=문해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중요한 역량으로 평가된다. 101개의 키워드로 평화를 설명한 책. 101은 100을 마무리하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는 현재진행형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 저자들은 한눈에 이해할 수 있게 평화의 핵심을 풀어낸다. 전쟁, 차별, 혐오, 갈등 등의 세상에서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 길은 무엇일까? 〈푸른 들녘·16000원〉

▲내 마음을 고백하는 방법=처음 사랑이라는 어려운 문제에 직면한 아홉 살 아이들의 생기발랄한 분투기를 담은 동화. 이제 막 이성에 눈을 뜨기 시작한 민준이는 좋아하는 친구에게 잘 보이려는 계획

이 틀어지고 만다. 작가는 상대의 입장에서 말과 행동을 비추고 생각을 키워가는 민준이의 실패담을 비롯해 민준이와 친구들의 엇갈린 애정 전선을 위트있게 그려낸다. 〈푸른숲주니어·1만2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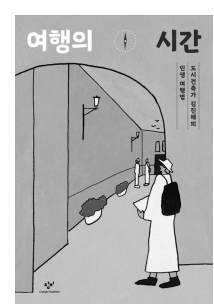
▲우리 마을에 온 손님=이웃 마을에서 싸움을 걸어서 살 곳을 잃은 동물들로 북적북적해진 토끼마을을 배경으로 연대와 공존을 그린 작품이다. 각각 다른 이유로 삶의 터전을 등지고 떠날 수밖에 없는 난민과 난민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타인과 나 사이의 편견의 벽을 쌓는 우리의 이기심이 동물들 세계에 투영돼 있다. 〈모든요일그림책·1만5000원〉

인생의 시간을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특별한 여행 이야기

여행의 시간

김진애 지음

“여행의 시간은 짧지만 여행을 품은 인생의 시간은 길다.” 책 맨 앞에 쓰인 문장에 무릎을 친다.



건축가 김진애의 새 책 ‘여행의 시간- 도시 건축가 김진애의 인생 여행법’은 인생의 시간을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특별한 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이 책을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쓰리라는 예감이 처음부터 들었다”는 작가는 “독자가 자신의 여행에서 견져냈던 것을 다시 떠올리고, 또 다른 여행지의 가능성을 꿈꾸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썼다”고 말한다.

책은 모두 3부로 이뤄져 있다. 1부는 홀로 살아가는 인생에서 ‘나’라는 인간이 어떻게 여행의 시간을 통해 자라는지 보여준다. 최고의 여행으로 꼽는 ‘홀로 여행’

에 대한 이야기부터 궁합이 맞는 여행지를 선택하고, 기대하는 마음 등이 담겼다.

늘 바빠 움직이는 여행에서 벗어나 4000킬로미터에 달하는 대공강을 길이 15미터, 폭 2-3미터 남짓한 목선을 타고 떠내려가며 멍 때렸던 ‘느린 여행’의 기억은 자신을 찾는 최고의 여행이었다고 이야기한다.

2부는 우리가 맺고 있는 일상의 관계가 어떻게 여행에서 증폭되고 재발견되는 지에 대해 들려준다. 계속 같이 붙어 있어 좋기도 하고, 싫기도 한 커플 여행, 아이와 함께 떠나는 여행, 누구에게나 미션처럼 생각되는 효도여행, 그리고 반려동물과 함께 떠나는 여행 등을 만난다.

3부는 여행에 대한 선택의 이야기다. 여행이란 여차피 돈과 시간 사이의 줄타기이기에 늘 어떤 ‘선택’을 해야 하지만 돈과 시간만이 전부 아니라고 말한다.

저자는 인기를 모았던 TV 프로그램 ‘알쓸신잡’ 촬영차 떠난 여행을 잘 알지 못하는 이들과 함께였기에 즐거웠고, 더 잘 통했는지 모르다며 이방인과의 만남에도 적극 나서보라고 권한다.

그밖에 ‘놓쳐버린, 하지 못한, 하지 못할 여행’에 대한 이야기와 ‘디지털 방구석 여행이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풀어놓는다.

무엇보다 충실한 부록이 눈에 띈다. 자연여행보다는 ‘인간 마음의 본성과 욕망과 위대함과 허무함의 역학을 해이하게 만드는, 지극히 인간적인 호기심으로 도시 여행에 매혹돼’ 도시여행을 최고로 치는 그이기에 ‘김진애의 도시 여행법’은 도시 탐험을 꿈꾸는 이들에게 참고가 된다.

단 하나의 호기심만 있다면 떠날 이유는 충분하고, 길을 잃고 무작정 걸어보고, 한끼 만든 음식 제대로 먹고, 가장 높이 오르는 건 ‘달레탕트 여행스타일’의 메뉴얼이다. 그밖에 해외도시와 우리 도시를 짝으로 묶어보고 그 도시를 담은 영화·문학·그림을 찾아보는 프로 스타일, 고수 스타일 등을 통해 다양한 여행 팁을 제공한다.

작가는 여행을 다녀와서 그 곳의 자료를 계속 찾아보게 만드는 여행이 진짜 좋은 여행이라고 말한다.

〈창비·1만8000원〉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